

교회목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 11 : 40)

순례자

발행인: 이종윤

편집인: 나희주

편집주간: 원필현

발행처: 서울 장로교회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화: 517-7651~5

FAX: 512-1225

피택장로들

영성 훈련차
산상 철야 기도회
갖는다.

우리 교회 피택장로들은 오는 8월 20일(금) 동두천에 소재한 밀알 기도원에서 영성훈련을 위한 산상철야 기도회를 갖는다.

피택장로 7인은 지금까지 매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마친 후 1시간 30분 동안 6개월간의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철저히 훈련을 받아왔다.

이번 산상철야 기도회가 21세기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를 향해 가는 서울교회 장로로서 훈련받는 기회가 되도록 온 성도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다.

성경통신

상반기 평가 및 시상가져

우리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 노은환 장로)에서는 지난 주일(8월 8일)에 성경통신교재 공부에 대한 상반기 평가 및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에는 88세된 조범식 집사를 비롯한 240명이었으며, 부상으로는 이종윤 목사의 저서인 “사전을 넘어서”가 주어졌다. 특히 고등부 최읍균은 6개월 동안 신구약 성경을 2번 통독한 최다 독경자로 시상되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후반기에 더 많은 성도들이 성실하게 참여하여 말씀을 배우는 교회상을 세워줄 것을 기대한다고 한다.

8월 20일 고3 수험생들
수학능력시험 치른다.

우리교회 고등부(부장 노문환 장로)는 오는 8월 20일 대입 수학능력 시험을 위해 오늘 고등부 집회시 기도 결연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 입시생들과 기도 결연자가 한마음으로 기도해 왔지만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함으로 위로와 용기를 주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박·임 우간다 선교사
인사 및 선교보고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8월 8일) 찬양예배시 박숙경, 임정미 우간다 선교사들의 인사 및 선교보고가 있었다.

박숙경 선교사는 우리교회의 선교지원을 받던 중 3년 임기를 마치고 1년간 산부인과 특수수련을 받기 위해 귀국했는데 그는 현대문명의 혜택을 전혀받지 못한 가운데 단지 호롱불 밑에서 수술을 해야 하는 우간다의 사역은 전직 하나님의 은혜는 도우심이었다고 고백하였다.

한편 앞으로 우리교회의 지원을 받게 될 임정미 선교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사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우간다에 사랑의 선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신촌성결교회 원로 목사 이자 외항선교회 이사장이신 정진경 목사는 “인류를 그리스도에게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으며, 월드컨선의 상임대표인 최기만 목사는 축도를 하였다. 이로써, 온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었다.

목회자
동정

앤젤레스를 방문한다. 이 목사는 월드컨선 한국회장으로서 씨아틀 세계본부를 찾아 후레드 그레고리 월드컨선 세계 회장과 만나 선교에 대한 제반 문제를 협의케 된다. 또한 라성 한일교회(김의환 목사 시무)에서 8월 27일부터 3일간 집회인도를 한후 미주개혁신학교에서 2일간 (30-31일) “공관복음서” 강의를 한후 9월 3일 귀국 예정이다. 이 목사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온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한다.

※ 이종윤 목사는 오는 8월 23일부터 10일간 미국 씨아틀과 로스

☐...한마디의 말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초상화를 그리는 것과 같다.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광야의
영소리

창세기강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창1:3-28)



이종윤 목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그 때마다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피조물들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계시의 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창조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신앙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법중의 하나가 창조된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식별하는 이 모든 피조물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시는지 분별하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된 것을 보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하나님 자신이 창조사역에 직접 개입 하시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창조신앙을 통하여 배울 진리는 첫째, 진리와 통치자, 지혜, 인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창조 배후에 계신다는 것. 둘째, 모든 창조는 질서있게 아름답게 창조된 것. 셋째, 하나님은 선하게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1. 창조의 근원되시는 하나님

‘태초에’라는 말은 모든 사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계획대로 선하게 만드시고(7, 16, 25), 놓으시고(17), 보셨고(10, 12, 18, 21, 25), 불렀습니다(4, 7) 그리고 그 하신 비를 남자와 여자에게 설명해 주시고(20~30)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창조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으로 불렸습니다. 엘로

힘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들’이란 뜻이 됩니다. 복수로 표현된 이 엘로힘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인데, 하는 의문이 있는데 히브리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을 복수형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분이 연설할 때 ‘내가’라는 말보다는 ‘우리가’라는 복수형으로 말하는 것이 권위를 높여 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복수의 무거운 뜻으로 ‘엘로힘’이란 하나님의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함으로 인하여 ‘엘로힘’이라고 표현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창세기의 서두처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태초에 계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태초에 계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성을 말합니다. 요한복음(1:10)에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요한복음 1:3에 의하면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창1:26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3:22에 “사람이 이제 선과악을 아는 일에 우리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4세기때 어거스틴이란 신학자가 성경을 읽다가 삼위일체 이론을 발견했습니다. 태초에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인격을 가지신 삼위

면서 동시에 한 위를 가지신 삼위 일체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무지 해석이 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논리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믿는 창조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믿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2) 언어 계시의 중요성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해 주십니다.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만 동시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중에 어느 것이 먼저냐고 말하기 어렵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역사원을 하신 일을 감사하는 감사의 반응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고 감사 찬송을 부르고 결심하고 나아가 열매 맺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3) 창조 배후에 계신 하나님

창조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강조는 언제든지 피조물을 보면서, 직접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생각하면서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높여드리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또한 창조 신앙은 성경이 가르치는 종교와 타종교를 구별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종과 헌신을 온전히 바쳐야 할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 복종중의 최고복종은 봉사 복종이며 최고의 헌신은 예배 헌신입니다. 예배를 통해

서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2. 질서있게 창조하심

헬라인들은 우주라는 말을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조화와 질서’가 있는 세계’라는 말입니다. 6일 동안 순서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은 매우 질서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피조물된 우리도 이 세상을 질서있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광주리에 남은 것을 건어오는 것까지 아주 질서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질서를 가지고 모든 일을 수행하는 것이 창조신앙을 가진자와 모습입니다.

3. 하나님의 도덕적 선언

창조를 하실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필요하시서 하나님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10, 12, 18, 21, 25) ‘Good’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가치를 굉장히 높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음받기 전에 그 대상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언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피조물을 기뻐해야 하며 동시에 만물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이 책임감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기초한 것입니다. 만물을 보존하고 보급하시는 하나님앞에 책임있는 보급자, 보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신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에 대하여

말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지 만 말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는 사람은 의외로 드물다. 생각없는 말로 인해 상처입은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하찮은 말 한 마디가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못지 않게 심각한 언어공해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을 원하듯 그리스도인은 순수한 말만 골라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언어는 그 사람의 품위와 인격, 정서까지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인 만큼 할 수 있다면 좋은 말,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바벨탑 사건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전혀 상관없는 일로 접어두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생각내키는대로 해버릴때 제2의 바벨탑을 쌓는 우를 범할까 두렵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해서 말 조심을 강조하고 있다. 논리적인 사고와 고매한 인격을 바탕으로 품위있게 구사하는 말은 가을하늘처럼 청정하고 슈만이나 쇼팽의 선율처럼 감미롭지만, 생각없이 토해내는 비속하고 원색적인 말은 무딘 도끼로 통나무를 찍는 것 같은 삭막하고 건조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만다. 더구나 남을 비난하는 말, 아부하는 간사한 말, 교양을 의심케 하는 비천한 말을 들을때는 가없는 환멸을 느낄 뿐이다. 천차만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오히려 부족하다 할 것이다. 말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성도들의 언어는 깨끗하고 싱그러운 향기가 풍겨야 한다.

그러나 우리들의 실상은 어떤가?

고난당한 이웃에게 햇살이불같이 포근하고 따뜻한 위로를, 낙심한 이에게 의욕이 넘치는 진실한 격려를 그리고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경사스러운 일에 시기와 질투없는 진정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떳떳하랴?

참으로 위력있는 말은 다변과 능변이 아니라 진실하고 바른 말이다.



눈물의 기도

장 경 순 집사

저는 남편(차현명 집사)의 직 장인 삼성 조선소가 있는 거제도에서 8년간 생활하였습니다. 남편이 조선 설계 기술자 이어서 바닷가를 떠날 수 없었고 그런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새벽기도로서 두 가지를 강구했습니다. 하나는 서울에서 직장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목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중 뜻밖에 88년 7월에

남편이 본사인 삼성엔지니어링에 전배 되었습니다. 남편의 직종때문에 불가능하리라 여겼던 일이 실현된 것입니다.

서울에 온 뒤로는 교회를 정하기 위해 교회를 몇군데 다니던중 이종윤 목사님의 설교를 접하게 되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서울교회가 세워진 즈음의 일입니다. 거제에서 일이 많게 되어 당시 서울로 전배 온 직원을 다시

어머니의 죽음을 바라보며

이영희 (고등부)

생의 마감을 눈앞에 두고 조용히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모습,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또 있을까. 고요히 눈 감고 계신 그 해맑은 얼굴, 감히 말 못 붙이고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너무나도 신선하고 깨끗한, 정결한 모습에 나의 영혼이 빨려 들어감을 느낀다.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 전의 어머니 모습에서조차 결코 찾아보지 못했던 순수함에 가슴이 떨려온다.

이런 모습을 어디서 보았을까? 고요히 잠들어 있는 갓난 아기의 모습에서였을까? 그러나 그것과는 다른 모든 것을 초월한 완숙한 경지를 발견하게 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놓아버린 인간의 생각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성결한 모습이다.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내맡긴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이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것이구나. 바로 이것이구나. “오, 주님 이루소서. 나의 안에서 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온다.

아담을 생각해 본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어린이 같이 천진난만하게 뛰어 놀았으리라. 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순수하고 깨끗함 속에 껴매 빠지는 것조차 모르면서, 불순종이 그런 큰 결과를 가져오리라 전혀 생각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인생은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했고, 가시덩쿨과 엉겅퀴를 헤치며 수고해야 했다. 아벨의 죽음과 가인의 쫓겨다남을 보고, 또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당면해야 했던 여러 문제들 속에 그들은 에덴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을 애타게 후회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에덴으로 다시 부르셨다. 이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죄임이 그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다시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불러 내리는 일이 있게 되어 남편은 거제로 가야만 했고 동료들은 남편에게 송별식도 해주었습니다.

저는 서울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거제로 다시 가면 신앙이 약해질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식구가 서울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너무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종 인사명령에 남편의 이름이 빠진 것입니다. 동료들도 어떻게 된 일이라고 의아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당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다시 한 번 기도의 응답을 체험케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있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길에 가면서도 기도합니다.

거제도에서 있다가 서울로 와 보니 엄청나게 오른 집값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라도 건축 헌금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압니다.

선한 기도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실지 벌써부터 두근거리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순례자칼럼

두 마음을
갖지 말자

우심화 목사

《사기·자객열전》에 나오는 이야기다. 진(晉)나라 사람 예양은 범씨와 중행씨를 섬기다가 별다른 대우를 못받고는 그들을 떠나 지백을 섬겼다. 지백은 그를 중용하였다. 얼마후 지백은 조양자를 공격하였는데 조양자는 한·위나라와 연합하여 지백을 멸하였다. 예양을 자기를 인정해준 지백을 위해 복수할 것을 다짐하였다.

예양은 이름을 갖고 형으로 복역하는 자로 가장하여, 조양자의 궁으로 잠입하였다. 가슴에 비수를 품은 그는 뒷간지기로 일하며 복수할 기회를 노렸다. 그러나 뒷간에 들른 조양자는 이상한 예감을 느끼고 복역수를 붙잡아 심문하였다. 결국 예양은 발각되고 지백을 위해 복수하고자 하였음을 자백하였다. 조양자는 “그는 의인이다. 내가 조심하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주위에서 예양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제지하고 그를 풀어주었다.

그 후 예양은 몸에 철을 발라 문둥병자와 같게 하고 숲을 삼켜 목소리를 쇠게 하였다. 그의 아내도 못 알아보도록 모습이 변하여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예양을 한 친구가 용케 알아보았다.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자네의 재능으로 조양자를 섬기셨다면 조양자가 어찌 자네를 가까이에 두고 쓰지 않았겠는가? 그를 가까이 한 후 기회를 노린다면 손쉽게 많은가!”라고 충고하였다. 이에 예양은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를 죽이려 함은 두 마음을 품고 주인을 섬기는 것이라며 그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방법을 택함은 후대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려함이다 라고 답하며 거절하였다.

그 후 예양은 조양자가 출입하는 한 다리 밑에 잠복하였다. 그러나 다리를 지나던 조양자의 말이 갑자기 놀라며 멈추었다. 조양자는 “이는 문명 예양이다!”라고 말하며 수색을 명하였다. 결국 예양은 다시 붙잡히고 조양자는 그를 바라보며 크게 꾸짖었다. “너는 범·중행씨를 섬기지 않았느냐? 지백이 그들을 멸하였을때 너는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지백을 섬기더니 이제 지백도 죽었는데 왜 너는 유독 그만을 위해 이다지 복수를 일삼느냐?” 지백은 조양자를 조용히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범·중행씨는 모두 나를 못사람으로 대하였음으로 나 역시 못사람처럼 보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백은 나를 국사로 대하였으니 나 또한 국사로서 그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 역사의 한 예화이지만 우리는 이글을 통해 신앙인으로서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역사보다 더 존귀한 그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의 한 없는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이 아닌가 새삼 여겨진다.

교우
소식

김상철 집사(5교구)는 한미우호협회 회장으로서 미국 흑인 하원의원 6명과 언론인 4명, 주의원 등 21명의 미국 사회 지도자들을 초청하였다. 지

난 8월 10일부터 한 주간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이들은 한·흑 갈등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와 경제 지도자 면담등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교회갱신과 성장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

❖ 초청의 말씀 ❖

한국교회 갱신연구원 제4학기 목회자 세미나가 목회자의 경건과 설교라는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흔들리는 한국교회의 바른 방향설정을 위해 성경적 교회론을 심도있게 다루면서 이혼분의 고전적 인물들을 동서양에서 택해 우리들 목회현장의 모델로 삼고자합니다. 이를 위해 열분의 국내외 석학들과 경건한 교회지도자들의 특별히 연구된 논문들이 발표될 것입니다.

경향 각지에 흩어져 계신 목회자님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준높고 목회에 크게 도움이 될 효율적인 강의를 진행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전국의 동역자 여러분을 초대하며 기도후원을 바랍니다.

한국교회 갱신연구원

원장 이종윤(서울장로교회 목사)

❖ 세미나 안내 ❖

주제 : 목회자의 경건과 설교

- 2000년대를 향한 한국교회 목회 모델 -

- 세미나기간: 1993년 9월 13일 - 11월 15일 (10주간)
- 일 시: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5시 20분
- 장 소: 강남 YMCA (서울 강남구 논현동 225-6)
전화: 547-0817
- 수강대상: 전국의 목회자
- 수업년한: 2년으로 하되 일년에 2학기 (한학기는 10주) 총 40주
- 원서교부 및 접수일: 1993년 8월 16일 - 9월 13일
- 제출서류: 본원 소정양식의 원서, 증명사진 4장, 지무하는 교회의 주보 혹은 교역자 증명서
- 등록금: 한 학기(10주)에 만원
- 교부 및 접수처: 한국교회 갱신연구원 (서울장로교회사무국)
135-010 강남구 논현동 165-18 서울강남우체국 사석향 2123
전화: 517-7651/5 팩스: 512-1225

한국교회 갱신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Mission & Church Renewal International
Tel : 517-7651~5 Fax : 512-1225 (서울장로교회)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주의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예배당을 짓게 하소서.
2. 제4학기 목회자 세미나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3. 입시생들이 8월 20일에 있을 수학능력시험을 잘 준비하도록.

예배안내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오전 9:00
	II 오전 11:00
	III 오후 2:00
찬양 예배	오후 5:00
수요 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12: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교회약도

